

음대신 기침과 호흡곤란의 발작이 쉽게 유발될 수 있겠다.

누구나 마음이 괴로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픔을 경험한다. 즉 신체적 고통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숨겨져있는 마음속의 문제를 밝혀내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한양외대 신경정신과장·의박〉

## 집단전환증

### (히스테리)에 관하여



### 金 二 泳

최근 전국의 몇몇 중학교에서 발생하여 문제가 된 집단히스테리(집단전환증)는 그 병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만치 그 처리과정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을 던져주고 있다.

전환증이란 여러가지 신경증(소위 노이로제)의 일종으로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한 마음속의 갈등이 그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데 이런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그 갈등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육체적인 증상은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손발이 마비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장님이 되기도 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발작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간질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가벼운 증세로는 두통, 복통, 팔다리 추심, 혹은 밥을 잘 넘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자신에게는 불안에서의 해방이라는 일차적인 의미외에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일에서 해방된다는 주위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등의 이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전환증의 이차적인 이득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환증의 환자는 남이 보기에는 꼭 피병하는 사람과 같이 잘못 인식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자신이 없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없다는 것과 자기의 명성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면 자신의 체면도

손상되지 않고 피아노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이 마비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병과 다른 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손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작용에 의해서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어찌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환증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대개 여자인 경우가 많고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에게 많다고 한다. 즉 주위에서 누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면 자기도 그렇게 되거나 앓을가 하는 불안과 이때 누가 “너도 그런 증상이 있지 않느냐”는 암시적인 말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그 먼저 사람과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는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갈등으로 인한 불안에서 해방되고 또 주위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이차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한번 이렇게 됐을 때 그에게 적절한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이차적인 이득을 충족시켜 주면 그는 그 후에도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길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전과 같은 발작을 일으킴으로써 문제 장면에서도 피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는 가능한 어떤 이차적인 이득을 얻지못하게 하

고 그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어야만 앞으로 그런 발작 즉 전환증을 안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집단전환증의 경우나 과거에 외국에서 보고 되었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집단전환증은 대개의 경우 학교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처음에 발병하는 경우의 사람은 전부터 히스테리(전환증)의 발작이 있던 사람이거나 간질, 호흡발작을 일으키는 천식환자 등 급작스러운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가진 사람이고 이 환자가 수업시간에 발작을 일으키면 선생이나 그의 동료들은 당황하게 되고 공포감을 가지게 되기 쉽다. 그러면 그 환자 주위에 있던 피암시성이 강하고 그 나름대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차례차례 처음 환자와 비슷한 전환증의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때에 그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인 것처럼 얘기해서 공포감을 주거나 휴교 또는 조퇴를 시키면 이 휴교나 조퇴가 일종의 이차적인 이득이 되어서 더욱 환자발생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이번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기판에서나 정부당국이 피질이니 악성 독감이니 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과 귀가 및 휴교조치를 한 것이

환자발생을 증가시킨 한 요인이 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아무일 없다가 보도기관의 TV 카메라를 보고 일시에 몇사람이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집단전환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교나 귀가조치 등의 이차적인 이득을 차단하고 환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환자 자신에게는 그런 증상이 별로 대수롭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주위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한양의대 신경정신과·의박〉



“닉켈”을 찾기위한 고생이니 참아야지

## 장년기의 정신건강



### 金 喆 珪

장년기라면 대개 40세를 전후한 男女를 말하는 것으로 안다. 이 시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볼 때 인생의 黃金期에 속한다. 우선 人格面에서 그동안 유아기, 사춘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完成된 상태에 이른다. 生活面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위치하며 사회경제적면에도 그간의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각각 자기 분야에 완벽한 전문적 입장을 취하고 원숙한 중견 또는 지도적 존재가 된다. 사람이란 좀 묘한 동물이어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할때일수록 시간을 아낄줄 알며 신체적 정신적